

# 대한간호에 바란다

- ① 성명(년령)
- ② 소속
- ③ 바라는 말



①권인수 (22)  
 ②경북의대 부속병원  
 ③ 천사는 나태를 띄고 밝아오는 창공을 나르고 싶다. 천사의 속살거림과 투정과 웃음과 의지와 힘으로

가득한 「대한간호」를 발판으로 더 높이 더 힘차게 나르고 싶다. 구태의연한 문장과 형식으로 우리의 나태를 접제하지 말라. 고유한 우리의 세계를 통하여 직업적인 인간적성장을 바라고 싶다. 말하자면 투고인을 간호원 전체로 대중화시켜 우리가 꾸미는 우리의 요람이기를 바란다. 특히 전국 어디에서나 천사의 사명을 다 하고 있는 지방간호인의 함성과 웃음도 나누어 갖고 싶지 않은가.

천사여, 나태를 쫓아. 백의의 천사여!



①김성란 (37)  
 ②전주예수병원간호사업부  
 ③ 대한간호를 떠낸지 벌써 25년 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고 통권 100호가 나오게 된다니 그 감회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우

리의 선배들이 갖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앞찬 내일을 바라보며 옥토에 뿌린 씨앗들이 오늘 날 백배의 수확을 거두게 된 것이다. 이제 유명을 달리 하신분 이 땅을 떠나신 분, 또 오늘도 간호사업을 위해 불철주야 발벗고 뛰시는 선배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와 더불어 고개를 숙인다.

흔히 어른들에게서 「요사이 젊은 애들은 우리 자랄때와 너무 달라」하시는 말씀을 곧잘 듣는다. 나는 이 말속에서 요즈음 애들은 열심이 부족하

고 타산적이고 정열이 부족하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는 선배들에게서 나를 돌아보지 않고 일하는 화강암이라도 녹여낼 듯한 정열과 투지를 배워 이 초석위에 우리의간호사업을 더욱 굳게 하여 우리의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치고 호소하고 싶다.



①김학선 (31)  
 ②서울대 시범사업소  
 (강원도 춘성군)

③ 먼저 대한간호 100호 창간을 자축하며 4반세기 역경속에서 완전성인으로 키

워주신 관계자님들께 참가 머리를 숙입니다.

평소 너무 소홀히 대한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훨씬 열심히 아끼기로 결심하던 서 두가지 바램을 적어봅니다. 첫째 보건의간호영역에 더 많은 지면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보건의간호영역은 독자적인 업무가 많고 보수교육에 참여해도 항상 앞의 공백을 느낍니다. 물론 여러 선배님들의 역작도 많지만 쉽게 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대한간호가 아닐까요? 둘째는 일단 교양상식 및 독자들에게 지나 공부정도의 가벼운 지면을 할애하면 지금보다 좀더 부드러운 대한간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①김희숙 (23)  
 ②노동청 산업재활원  
 ③ 꿈이 아니더면 네가 어떻게 왔으랴..... 하겠지만서도 봄날에 달을 잡으려 산위에 오를때에 벽차기도

한때 더불어 대한간호 지령 100號를 맞으니 새

## 대한간호의 발자취와 전망

삼 감회가 깊어진다. 고대의 경주자들이 오로지 꽃대를 향해서 모든 지체를 사용하여 정진했듯이 대한간호 역시 간호의 질적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고 본다. 시대에 따른 경륜으로 좁은 테두리안에 몰입하기. 쉬운 간호를 세계적인 간호에 흡수시키려는 열심에 비례하여 간호계에 발담고 있는 우리들 얼마나 보탬이 됐는지 뒤돌아본다. 우리라는 대명사는 매우 의미가 깊다. 그 우리라는 속에는 친화력을 가지고 모든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횡적관계의 범위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식을 쌓는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보태어 지혜를 얻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은쟁반에 금사과를 올려놓은 것 같은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런면에서 대간은 직접 간접적으로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본다. 많은 눈들의 총아로써 그리고 내역으로써 간호계를 대표하는 인물인 대간에게 끝으로 바라고 싶은것은 시간의 축적과 더불어 완숙함이 돋보이는 것처럼 계속 발분하여 대기만성형의 책이 되어달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간호원들이 세계적인 관점에서 전인간호를 유감없이 발휘하는데 보다 철경을 걸을수 있도록 지식전달과 인간성의 교육을 기대하고자 한다.



- ①문희자 (39)
- ②경희의대 간호학과
- ③「대한간호」는 최근 한국간호의 발자취입니다. 신체부분에 비유한다면 내부상태를 나타내는 얼굴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개체의 건강은 생체단위 세포의 기능에 의존하며 이를 기조로한 중요 계통장기의 기능은 생명현상과 직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간호 편집인 여러분의 기능을 중요 장기의 기능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쉽게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나 그 결과는 쉽게 볼 수 있어서 회원 각자에게 생각을 주고 자극을 줍니다. 회원들은 인간적으로 전문적으로 발전할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지식과 기술

의 향상, 직업윤리의 양양, 직권의 확립을 통하여 간호업무의 교육을 향상시켜 국민체질의 건강을 도모함」이라는 대한간협회의 목적을 편집과정을 통하여 이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①박양자 (38)
- ②서울시 양호교사회장
- ③ 우리의 것인 「대한간호」 100호에 대한 발전적인 자랑의 뿌듯한 마음을 소리쳐서 기쁨을 표해보고 싶

다. 그러기에 요즘은 더욱 아끼고 싶고 손에서 놓고 싶지 않은 「대한간호」지에 바라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또한 더 더욱 크지않을수 없다. 전인구의 약 25%인 학생 건강을 맡고 있는 학교보건은 학교에서의 양호뿐만 아니라 사회인의양호 나아가 국민건강의 밑받침인 양호의 증대함을 감안하여 양호교사들이 「대한간호」지를 통해 얻은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학교 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실질적인 사례동 자료」를 다루워 주었으면 좋겠다. 우린 2000년대를 향한 1차 건강관리의 요원으로 질병간호에서 예방간호로 학생건강에 도움을 주고픈 것이다.



- ①유순녀 (26)
- ②광주연초제조창부속의원
- ③ 우리회원들은 모든 사물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막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필시 나 자신을 해치는

모든 것들까지도 학술적인 연구논문은 우리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또한 실태조사 측 숫자들의 나열이 얼마만큼 정확한지 조금은 미심쩍은 생각이 드는것은 어쩔수 없다. 우리들의 가슴을 찡하게 하는 전기소설과 연재소설은 아주 감명깊게 읽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찬 내용의 소설이 한편씩은 더 수록됐으면 좋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산업분야에서 근무하는 회원들 그리고 입상에서 직접 근무하는 회원

들의 인간관계가 하나 가득 실린 잡지를 위한 잡지보국은 인간을 위한 절실한 사랑이 담긴 우리 회원들의 가슴속에 울려 퍼지는 그러한 대한간호 100호가 꼭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대한간호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 ①이 성 옥 (57)
- ②임상간호원회장
- ③ 먼저 어려움과 고난을 슬기와 용기 그리고 인내로 이겨오며 오늘의 역사를 이룩한 대한간호 100호의

발간을 회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는 보다 발전된 양질의 간호를 널리 보급하여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으며 의료제도의 확충에 따른 간호전문직의 역할과 기대는 그 어느때보다 절실합니다.

따라서 많은 수의 회원이 임상에 종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임상에 필요한 내용을 게재하여 임상회원의 구독율을 높이고 또한 좋은 자료로서 도움이 주워졌으면 합니다.

- ①이 양 자
- ②마산 자유 수출지역 동경시리온 의무실
- ③ 간호인의 정신적 지주로서 시대적 사명감과 간호인의 긍지를 갖게 하는데에 대한 대한간호의 공헌을 우리는 간파하여서는 안된다.

창간 100호라는 본 협회지의 연륜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정부의 사회복지제도의 확립과 의료제도의 확충으로 어느때보다 간호인의 기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기도 하다.

계속적인 노력으로 간호인의 자질향상에 매진하고 앞장서 줄것을 당부한다.



- ①김 소 자
- ②대전 선화국민학교
- ③ 희 노 애 락의 영상들! 오후의 교정은 조용하기만 하다. 넓다란 운동장은 폭 련 뭉오리 내밀고 교복에

매달린 한잎의 푸른잎은 내 마음에 은빛 생각을 갖어다 준다. 간호원 생활 20년 강산이 변해도 두번은 변하였지만 인선의 갈증은.....아직도 창간 간호지가 매월 손에 쥐어질때 마다 정신적인 저수지가 되었다. 즉 정신적인 자양을 간호지에서 얻었다. 어느날 간호지가 격월로 나온다는 지면의 소식에 최후의 한잎에 갈증을 느꼈다. 혹시나 3개월에 일회 발간이 나온다는 소식이 지면에 실리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 뿐이다.

어쨌든 합심하여 이 간호지가 여호와께서 주신 순금의 아들처럼 가장 존경받는 Rabbi (Akiva) 처럼 마음 모아 최대의 전문지로 키워지기를 비는 마음 뿐이다. 며칠전 「탈루드」란 책자 속에 문을 여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여는 것이며 탈루드의 마음을 붙잡는 것은 자신의 명철한 두뇌와 부단한 노력에 달려있다고 읽은 기억이 난다 우리 간호원들이 합심하여 문을 열고 마음을 붙잡는 간호지를 재산으로 만들기에 환영합니다. 간호지의 백회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①이 경 애 (28)
- ②제105야전병원
- ③여성의 손으로 100호에 이르게 되도록 수고한 손길 위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

전문지로서 한정된 소재로 엮어나가는 고충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학적인 논문 형식으로 하는 편집 방법과 국내의 간호의 동향에 비해 해외 총회를 다루는데 치우친 것 같아 약간의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

실질적인 임상에서의 환자와의 문제점 및 특수 분야에 근무하는 회원들을 위한 면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한 회원들의 정서순환을 위해 문예란을 보강했으면 하고 감히 바란다.

봄을 맞아 우리 간협이 발전에 화사한 꽃이 더 한층 피길 회원의 한 사람으로 소박한 기원을 한다.